

나눔터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	3
여기는 상담실 교사, 강사에 의한 제자 성폭력 사건	5
여기는 상담실 위기센터 소식	8
기획 토크로 여성학 하기	9
조사와 연구 성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이론적 접근	10
길을 따라서 여자의 작은 여자인가	12
몸이야기 이 몸이 없다면	13
성문화 읽기 김한섭의 「창녀론」을 읽고	14
여성계 소식	15
소모임 소식	15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 림 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1996년 3월~7월중 다음과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개소 5주년 기념 행사 /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세미나 -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 제11기 나눔이 교육 / 제8기 상담원 교육 / 제220차 정신대 수요시위 / 상담소 전체 식구 모꼬지 / 제5기 지킴이(야간상담원) 교육

개소 5주년 기념 행사



국내 최초로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으로 문을 연 본 상담소가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4월 30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및 잔치마당을 가졌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세미나

-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서울특별시 주최, 본 상담소 주관으로 5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제11기 나눔이 교육



제11기 나눔이 17명을 모집하여 3월 23일,

29일, 30일 3일 간에 걸쳐 교육을 했다. 교육내용은 우리사회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자원활동의 의미, 성교육 등이었다. 현재 11기를 포함하여 25명의 나눔이가 활동하고 있다.

제8기 상담원 교육



제8기 상담원 교육이 3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되었다. 6주에 걸쳐 여성학, 상담학 교육이, 이어서 4주간에 걸쳐 상담실습 과정이 있었다. 현재 8명의 8기 상담원이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9기 상담원 교육이 9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576-5513, 교육담당자.

제220차 정신대 수요시위



6월 12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에서 본 상담소 주관으로 제220차 정신대 수요시위가 있었다. 잇따른 일본의원들의 망언에 즈음하여 김상희 할머니가 직접 수요시위에 나와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효재 선생님을 비롯 10여 분의 수녀님과 여행중이던 외국인도 시위에 동참했다.

상담소 전체 식구 모꼬지



7월 6일에서 7일 이틀간 아우내 수련관에서 상담소 모꼬지가 있었다. 상담소에서 함께 일하는 나눔이, 지킴이, 상담원, 상근자들이 모여 각 파트의 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제5기 지킴이(야간상담원) 교육



4월 21일부터 5월18일까지 야간상담원의 교육과정이 있었다. 100여 명의 서류접수자 중 면접을 거쳐 교육을 받게 된 인원은 73명. 최종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활동을 하게 된 인원은 65명이다. 이제까지 상담보조원으로 활동하던 지킴이가 야간상담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상담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되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고착 또는 형성과정에 있는 가해자의 성폭력행위는 형벌만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재범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의식과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박 현 이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정책학과 사회복지학 석사졸업

‘남성들은 왜 성폭력을 하는가’

성폭력 상담소와 4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 오면서 언제나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남성들은 왜 성폭력을 하는가’였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그토록 피해자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상담소의 사례 중에도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성범죄는 양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남학생이 60대 중반의 할머니를 강간한 사건과 3명의 남자 중학생이 초등학교 남학생을 향문추행하고 그 초등학생의 어머니를 윤간한 사건 등은 청소년 성폭력의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1993년 청소년 강간범죄자는 총 1,696명인데 이중 재범은 594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있어 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적인 범행을 할 수도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청소년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연구만으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밝힐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연구를 하였고 올 7월초에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라는 논문을 완성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성폭력법과의 인터뷰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 가족상담실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인 청소년 성폭력범 8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방법은 심층면접 방식으로 95년 10월에서 96년 4월 사이에 걸쳐 이뤄졌다. 한 번의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2, 3시간 정도이며, 인터뷰 횟수는 3~6회 정도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행청소년들은 사회화과정에서 가정과 학교로부터 유대가 약화되면서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폭력과 음란물에 접촉하면서 성폭력을 부추기는 ‘강간신화’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남성의 성기 크기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고 성기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기도 하며 ‘친구들끼리 술 먹다가 누가 더 많은 여성들과 성경험을 했는가로 내기를 하고 이들 중에 성교를 한 여성의 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술값을 낸다’고 한다. 이들은 남성다움의 핵심을 성기중심적이고 많은 여성들과 잦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적인 행동에 있어서 더 과시적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인 폭력을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에게 사용해도 타당하다고 믿으며, 이러한 믿음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

비행청소년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폭력을 경험했던 방식과 그러한 행위를 범하도록 이끌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행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성들을 혼내 주고 굴욕감을 갖게 하는 데 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남성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여자가 잘난 척하는 거는 못 봐줘요. 언젠가 내 친구보고 공주병 걸린 애가 ‘너 왜 이렇게 작아. 힘도 없이 생겼다’고 해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꼬서서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이랑 돌려버렸어요.”

남성우월주의 사상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는 여성비하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지배를 과시함으로써 그들의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비행청소년들은 ‘헌팅과 부킹을 하면서 남자가 술값을 내면 여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성(性)’이라고 생각하므로 폭력을 써서라도 대가를 지불받고자 하는 보상심리를 드러낸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폭력은 오락과 모험의 한 형태이고, 결국 그것은 이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인 것이다.

비행청소년들 중에 ‘성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폭력을 했다고 말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현상적으로는 우발적인 성충동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기까지는 간접적인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중매체에서 묘사하는 성폭력도 성적인 것만 부각시켜서 받아들일 만큼 성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벗은 여자만 보면 남자는 다 그렇지 않냐’고 생각하는 이들은 남성의 성충동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쉽게 성폭력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왜곡된 성의식을 강화시키는 또래문화

이상에서 논의된 청소년 성폭력범의 성비행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현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비행청소년의 성폭력 문제는 개인적인 특수성이나 비정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 같은 사회적 통념은 성폭력범에게 변명과 합리화를 제공한다.

둘째, 비행집단에 소속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통해 성폭력을 허용하고 강화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면서 성폭력이 이들의 유희거리(놀이)로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행청소년들은 ‘각자 애인은 따로 있으면서 토요일이면 유흥업소 일대로 몰려 가서 하룻밤 즐기 위해’ 헌팅과 부킹을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과 성교를 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비행집단내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비행청소년 집단의 또래문화는 많은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생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성파트너를 갖기 위해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행동화하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렇듯 이미 고착 또는 형성과정에 있는 가해자의 성폭력행위는 형벌만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재범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의식과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올바른 남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과 또래관계, 비행문화의 내면화 과정에서 ‘성폭력’이라는 단계로 발전하는 고리를 끊기 위하여 남녀의 성성(Sexuality)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신념들을 깨닫도록 하고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격체로 인식하도록 하며 여성과 진실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관계 훈련 또한 필요하다.

둘째로 폭력성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폭력은 더 심한 폭력을 낳고, 그것은 그들 미래에 암담한 결과만을 남긴다는 점을 비디오 자료 등을 통하여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 스스로가 이들의 행동이 피해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입하는 방법과 비폭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대인관계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또래집단과의 연대를 끊기 위한 훈련과 대안적인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이들로 하여금 또래집단이 주는 쾌락, 남성다움 등의 욕구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찾도록 하고 또래문화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방안이 필요하다.

넷째로 가족의 기능 강화와 가족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집단들과의 사회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가족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가족에 대한 유대감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청소년들과 유대와 통제가 약화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또래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소속감과 편안함을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공부와 학교에 흥미가 없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일이나 기술에 자신의 능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성교육 실시가 요구된다. 이들에게 임성과 낙태가 여성의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가를 인식시키는 등 피임, 임신, 낙태 등과 관련된 성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순간적인 성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범행을 했다는 청소년들에게 부풀려진 성관계 중심의 성이 아닌 인격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 인식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시기의 성욕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청소년 성폭력범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선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범에 대한 재사회화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

교사, 강사에 의한 제자 성폭력 사건

조 중 신 (상담1부 실장)

♣ 중학교 교장 성추행 사건, ○ 유치원 원장 성추행 사건 등 교육자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알려져 사회에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이 두 사건 모두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시설내에서 믿고 맡겨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이에 따른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자에 의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과 원아를 상대로 교육이란 미명하에 자행되었다는 점으로 더욱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사, 강사에 의한 제자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유인방법, 피해후유증, 추후결과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이후 96년 6월까지 접수된 5,197건, 1만 500여 회의 상담 중 48.9%가 19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례였는데, 이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교사, 강사 등에 의한 제자 성폭력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교사, 강사에 의한 성폭력 실태

	전체 성폭력 건수	교사에 의한 성폭력 건수	고 소
91년, 92년	1,260 건	35건 (4.3%)	
93년	841 건	30건 (3.6%)	
94년	1,356 건	39건 (2.9%)	1 건
95년	1,021 건	36건 (3.5%)	3 건 (1 건 구속 / 2 건 불구속 재판중)
96년 상반기	719 건	23건 (3.2%)	3 건 (검찰 수사중)

2.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의 특성

여기서 교사로 함은 유치원, 학교 등 제도교육권내의 교육자를 의미하고, 강사로 함은 사설학원, 과외, 체육관 등 비공식기관에서의 교육자를 의미한다. 군사부 일체라는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강한 우리사회에서 교직은 성직과 마찬가지로 윤리도덕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나 강사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아직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영향력을 받는, 스스로 결정하지

나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교육의 모습으로 위장되기 쉽고, 피해자에게 교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지 성적인 피해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교사와 제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피해사실을 드러내기가 힘들고, 용기를 내어 드러내보아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끌어지기 쉬워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도 더 많이 은폐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3. 사례에서 나타난 유인방법, 피해후유증, 처리결과

유치원

- 유치원 원장이 예절교육, 성교육을 시킨다고 70여 명의 유치원 원아들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하고는 말하면 혼내준다고 흥기로 인형을 찌르며 협박하여 아이들이 악몽과 이상행동을 보여 학부모들이 고소함. 구속수사중.
- 피아노 학원의 플랫선생이 7살 여아의 질 안에 손을 넣음. 아이가 밤마다 잠지가 아프다고 하여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받고 소견서 받아옴. 원장과 강사가 짝씩 벌며 돈으로 배상하겠다고 하는데 처벌하고 싶음.

초등학교

- 고1 여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 실어증으로 계속 정신과 치료받았는데 엄마가 일기장 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에게 성추행당한 후유증을 알게 됨. 진상을 알아보니 다른 학생들을 성추행하여 학부모들이 항의하였으나 교장이 명예퇴직하고 싶다고 무마했다고 함. 그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 교육청에 진정하니 형사상 범죄로 확정돼야 징계할 수 있다고 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친구들을 수소문하여 고소, 현재 검찰수사중임.
-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의 계속되는 성추행으로 학교생활이 어렵다고 5학년 때 담임 여교사에게 하소연하여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처벌을 요구. 사세가 나빠 교정해주려 했다고 우기다가 아이의 진술서를 보여주자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다른 학교로 전직함.
-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 편부, 편모 슬하의 어린이들만 골라 성추행, 강간함. 지속적으로 강간당한 아이가 동맥을 끊어 자살기도하면서 사건이 노출되어 진상을 알아보니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름. 고소를 꺼리는 학부모와 고소를 주장하는 학부모들간에 의견조정이 안 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노출이 되어 모든 부모들이 밝혀지기를 꺼려해 무마됨.
- 초등학교 1학년 남아가 여름방학에 수련장에 갔다가 그곳 교관에게 눈을 가리고 손가락이라면서 성기를 빨게 하는 성추행을 당함. 부모가 인지하고 따지니까 사실을 시인함.
- 초등학교 교사가 몇년에 걸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성추행해왔는데도 차마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인지한 부모도 자기 아이에게 해가 돌아올까 봐 쉬쉬하기도 하여 은폐되어 있다가 알려짐. 육성회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 파면을 요구함. 교육위원회에서 징계됨.
- 10살 여아를 3학년부터 60대 담임교사가 계속 성추행. 만지기도 하고 자기 성기를 만져달라고도 함. 너도 퇴학당하고 나도 당한다고 협박하여 얘기를 못함. 담임이 바뀌었는데도 특별반에서

계속 마주침. 멍하니 앉아 있고 깜짝 놀라고 밀이 가렵다고 팬티를 아무 데서나 벗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여 부모가 알게 됨. 교장에게 알리자 선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직서를 받음. 학교에서는 고발하면 직무유기로 학교가 책임 문책당하니까 서로 좋게 해결하자고 유도했으나 검찰에 사건 접수시키고 교육청에도 진정함.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찾아와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되지만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함. 고소 후 수사중.

중고등학교

- 학교 태권도부에 들어간 중1 여학생이 동계 합숙훈련 중 태권도부 사범에게 강간당하여 이를 인지한 부모가 상담, 경찰 연계하여 고소, 현재 재판 진행중.

이러한 권력관계에서의 성폭력은 교육의 모습으로 위장되기 쉽고, 피해자에게 교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지 성적인 피해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교사와 제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피해사실을 드러내기가 힘들고, 용기를 내어 드러내보아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끌어지기 쉬워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도 더 많이 은폐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고 있다.

- 여고 국사교사가 여고생들의 히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빈번히 함. 항의하면 성적 폭언을 함. 모대학 총장의 막내 아들이라 문책도 안 당하고 계속 근무함. 졸업하고 나서 후배들이 계속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법이 없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문의.
- 고1 여학생이 귀가길에 컴퓨터 강사가 차에 타라고 해서 친구 2명과 탔는데 친구들을 중간에 내려주고 나서는 “포르노 본 적 있냐, 팬티 입었나 보자”며 밑에 손을 넣고 브라우스 안으로 가슴을 만짐. 내리겠다고 펄쩍 뛰자 방학하면 연락하라며 빼빼번호를 적어줌. 학교에 항의하니 정식 교직원이 아니라고 책임 회피함.

- 엄마가 재혼한 후 외할머니와 사는 고1 여고생을 학교 체육선생이 유인하여 3일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 엄마가 새아버지와 함께 찾아가 때려주고 고소하였는데 교사는 아이가 찾아왔으며 화간을 주장함.
- 고2 여학생인데 사귀는 오빠와 같이 가다가 선생에게 들켰는데 이를 미끼로 3번이나 성추행을 당함. 학교에 안 가려고 해서 부모가 알게 됨.
- 고1 여학생을 중학교 동생의 학교 축구부 코치가 동생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며 나오라 하여 강간. 부모가 범인을 찾아내어 고소, 재판 진행중

재수학원, 대학교

- 대생인데 졸업 후 전화로 안부 전하던 선생님이 한번 만나자 하여 나갔다가 술마시고 난 후 강간당함. 그 후 울면서 거절해도 자꾸 강요하고 있음.
- 재수생인데 학원선생이 개인지도 해주다며 짐이 많으니까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강간. 학원을 옮겼는데도 찾아내어 또 강간하고는 계속 연락하여 불안에 떨고 있음.
- 유명학원 강사가 여자 재수생에게 고득점을 받으려면 몸에 혈을 넣어야 한다며 칸막이 음식점에서 성추행. 5명 정도가 피해를 당해 학원 상담교사에게 의논함.
- 음대 교수가 성악과 여학생을 조수미처럼 키워주겠다고 레슨 도중에 꺼안고 옷 속을 더듬음. 화를 내고 나와서 친구에게 의논했는데 선배도 그런 일을 당해왔다는 걸 알게 됨. 그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다며 도리어 문제학생으로 몰고, 선배들도 파에 공로가 큰 교수라 물의를 빚으면 과명예가 실추된다면서 참으라고 함.
- 경영학과 교수가 졸업생을 취업 미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지속함. 나중에 다른 후배 여러 명이 피해자란 것을 알게 됨.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단을 떠나게 하고 싶다고 함.

4. 대책 및 제한

위의 통계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학교내에서의 성폭력은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생활지도가 빙자하여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은커녕 결국 더 큰 상처를 입고 무마되고 말아 계속 은폐되고 재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교라는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도 범죄행위로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마땅히 그에 상응

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성폭력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성교육, 성폭력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학생들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부모도 이 문제에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녀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교사에게는 교직과목 이수시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필수화하고 정기적으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하며, 성교육전담 상담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사회교육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유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이런 비디오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느누구라도 성폭력 피해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예비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상황제시와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담은 성교육의 장 이 두 편의 비디오를 활용해 보십시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비디오의 내용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실질적인 상황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누구나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실었다.

대 상 : 여고 졸업반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

상영시간 : 30분

가 격 : 1만8천 원



내몸은 내가 지켜요

비디오의 내용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어린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과 노래극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다.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몸은 소중한 것이며, 내가 아끼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 상 :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상영시간 : 30분

가 격 : 1만8천 원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000원을 포함하여 2만 원을 등기로 보내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우송해 드립니다.

구입문의 : 02-576-7128

온라인 구좌번호 :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 협 037-01-194301 (받는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위기센터 소식

노 주 희 (위기센터 실장)

96년 4월 피해자 친구의 언니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상담실에 전화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에 나가기 시작한 지 2주일, 직장내 전체직원 등 반대회가 있어서 산에 갔다가 하산해서 회식도중 술에 취했다. 직원들이 2차를 가면서 취한 K양을 숙박업소에 쉴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함께 있던 여직원들은 K양이 안정되어 잠이 든 것을 보고 직원들이 모여있는 나이트로 놀러 나갔다. 직원들이 돌아왔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 사람소리가 들렸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남자직원 한 명이 그 방에 함께 있었다. K양은 자신의 피해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날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알려진 내용으로만 사건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K양은 친구언니의 권유로 상담소에 겨우 전화할 수 있게 되었고 토요법률상담으로 연계되었다. K는 그 날 상담에 응하면서 사건경위에 대해 묻는 변호사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했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맞잡은 손은 떨고 있었고, 자신의 상황이 한심스러운 듯 시종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와 당황스러움으로 떨고 있는 내담자를 만난 변호사는 안쓰러운 마음에 고소장 작성을 대신해 주겠다고 자원해 주었다.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사항(가해자 인적사항)과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동료직원들의 확인서가 필요하니 증인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오라는 당부와 함께 두려워 말라고, 울지 말라고,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미 행운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무슨 소리가 그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을까? 상담원도 안타까운 마음에 떨고 있는 두손을 꼭 잡고는 힘내자고,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상담을 끝내고 나서 K는 한결 안심을 하는 듯 보였다.

혼란스러웠던 K는 고소를 결심하였고 직장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고소장 작성을 마쳤다. 상담소에서 연계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였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사건은 조사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한 번 어려움에 부딪혀야 했다. 가해자가 잠적을 해버린 것이었다. 그의 호출번호도 알고 있었지만 조사계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사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곳으로서 형사계나 강력계처럼 발로 뛰어나며 가해자를 검거까지 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아내야 하는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처음엔 전화상담도 할 용기가 없었던 K양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가해자를 잡아내겠다는 일념에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만나자고 유도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스스로 나가기 겁나고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가해자를 마주할 용기가 안 나서 상

담소에 전화를 해주었던 친구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언니가 만났다. 첫시도에서는 가해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두번째는 시 경계를 넘어서 약속을 하는 바람에 112에 신고를 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다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나가기로 하였고 그날은 고소한 경찰서의 조사계로 도움을 청했지만 조사계에서는 출동해 줄 수 없으니 112의 도움을 받으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가해자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112가 제때에 출동을 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도 있었다. 1시간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K는 007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이 사건을 알고 도와주는 여동생과 작전팀이 되었다. 약속시간 1시간 전에 112에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먼저 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12는 구세주였다.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잠복을 해주겠다고 흔쾌히 응답해 왔고 고소되어 있는 사건이니 별 무리없이 가해자를 검거하여 경찰서로 넘길 수 있었다.

K양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처음엔 친구언니의 따뜻한 배려, 상담소에서의 온갖 정보, 변호사의 전문가적인 도움, 아직은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직장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심지어는 112에서의 뜻밖에도 도움으로 가해자 검거까지.

자신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가해자의 행위는 범죄임이 명확해졌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자신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가해자의 행위는 범죄임이 명확해졌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피해자에게 이 사회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자신이 살아가기에 절망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전화로도 상담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피해자가 한 달 만에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스스로 가해자 검거를 위해 나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건 피해 직후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도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완벽한 서류가 제출되었다. 완벽한 증인들이 있었고 또 모두 협조적이었다. 1심재판은 두 번의 공판으로 끝이 났다. 사실심리는 1회로 끝이 나고 두번째는 선고공판이었다. 가해자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청원에 "동료직원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구해 주고 돌봐주는 것이 인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너무나 치졸하고 유치한 범죄이다"고 주장하며 그대로 선고를 내렸다. 가해자의 죄명은 '준강간치사상'이었다.

사건발생으로부터 고소를 거쳐 1심재판이 끝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아마도 본 상담소에서 지원한 재판사건 중 최단기에 종료된 사건일 것이다. ☺

몸으로 여성학 하기

변리나씨와의 만남

나눔터기자 / 이수지

“게릴라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일전에 미국에서 한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게릴라족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군요. 강간사건이나 아내 구타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밤에 고릴라 가면을 쓴 여자들이 협박에 가까운 경고장을 동네 곳곳에 몰래 붙여놓고는 사라진대요. 워낙 조직적이고 재빠르게 움직여서 그 여자들은 결코 잡히는 법이 없습니다. 협박장의 효력은 더 커지지요.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제대로 숨 한번 내쉬고 살기도 어렵게 만드니까요.”

한 인간의 존재를 대면하고 나서 기자가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손톱끝만큼의 진실과 온 몸뚱어리만큼의 부끄러움이라고 고백한다면 적절할까. 그랬다. 리나씨라는 사람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취재가 아니었다. 게릴라족을 만들고 싶다는 리나씨. 여성학을 이론으로 파고 들어가려 했던 기자에게 ‘여성학은 책이 아닌 피부로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없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리나씨다.

매춘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매춘여성과 같이 살기도 했었다는 리나씨는 내게는 특이하게 보이면서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는 매춘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다. 기존의 선입관을 깨고 좀더 가깝게 매춘여성들과 사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기자는 질문을 준비한다.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매춘여성들에게 꽤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지. 비교적 열린 시각을 지녔다고 반가워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신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자에게 리나씨는 매춘여성이 우리와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리나씨는 ‘우리가’ 매춘여성과 다를 게 없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창녀들과 다를 게 없다...

어떤 사람들은 리나씨를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매춘여성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에이즈 환자와 함께 살면서도 그녀는 당당하다. 처음에는 그녀도 매춘여성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미아리 텍사스지역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녀 자신도 하나도 그들보다 나을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말을 만들어 갖다 붙여요. ‘그들에서 양지로 - 매춘여성들에게 새 삶의 빛과 환한 세상으로의 길을 열어준 구원자’ 뭐 대충 이런 식이지요.”

기자는 가슴이 뜨끔했다. “도대체 어디가 그늘이고 어디가 햇볕이라는 건지... 창녀촌 밖이라고 해서 그 안보다 더 나을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창녀들은 아무데서나 담배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욕을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요. 그런 면에선 어쩌면 창

녀들이 더 자유로운 곳에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보다도 매춘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리나씨는 그렇게 말했다. 훌훌단신의 몸으로 매매춘 지역에 뛰어들었던 리나씨. 매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책이 씌어지는 동안, 논쟁의 대상으로서만 ‘그들’이 이야기되는 동안 그녀는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이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논문도 책도 아닌 실질적인 행동이었다. ‘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매매춘 지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때로는 매춘여성들의 친구가 되었고, 때로는 큰 언니가 되어주었다. 그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같이 살면서 매춘 외의 또다른 삶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지해주었다. 하지만 ‘밖’이라고 해서 그녀들에게 진정한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매춘지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리나씨는 말할 수 없었다.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그녀들을 위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나는 무언가가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과 햇볕. 나는 햇빛 속에 있고 ‘그들’은 그들 속에 있었다는 생각. 나와 그들을 갈라놓고 있던 나의 ‘선’들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랬다. 나는 그녀들과 똑같은 이 사회의 여자일 뿐이었다. 무엇이 그녀들과 나를 분리시키는 선을 만들어 낸 것일까. 리나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번은 미아리 텍사스지역을 지나다가 여러 남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국 나 역시 남자들에게 의해 놀림감이 되는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소원도 안에 죽 앓아 있는 창녀들과 다를 게 없었던 거지요. 단지 창녀들은 자신들이 그런 여자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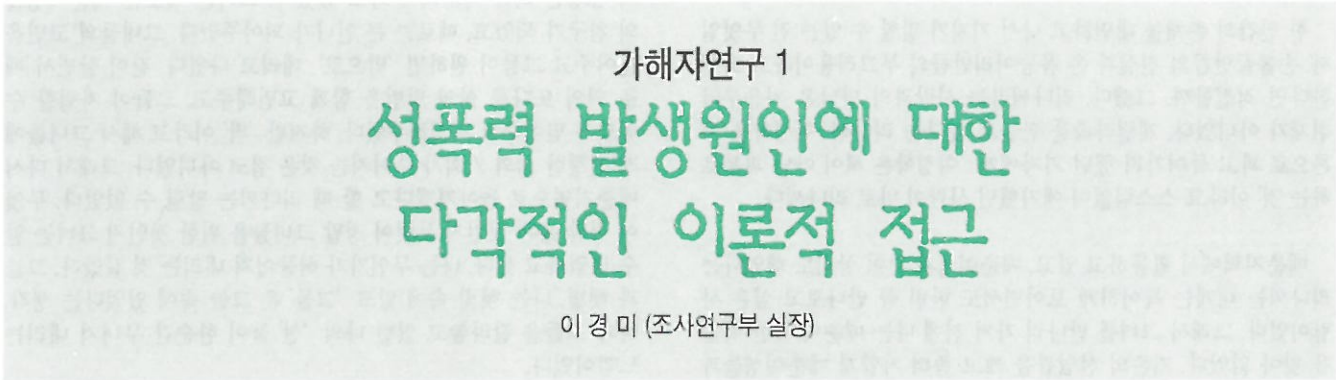
물론 창녀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매매춘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들에게는 이 사회에서 치유받지 못한 아픔과 좌절이 있다. 그녀들은 때때로 좋은 가정배경과 높은 학력을 가지고도 스스로 매춘지역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리나씨는 말한다. 사회가 그 여자들에게 남자와 똑같은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면,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도록 평등하게 교육받아 왔다면, 절대로 그녀들이 매매춘을 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리나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는 것이 기자에게 느껴져 온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의 분노야말로 이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솔직한

여성으로서의 고백이다. 이 땅의 여성들에겐 분노가 곧 힘이고 분노가 곧 그녀 자신들에 대한 철저한 사랑이다.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던 리나씨.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자신이 당한 일이 뭔지 알게 되고는 끊임없는 방황과 좌절을 겪었던 그녀는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남성과 동일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분노와 사랑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더 죽음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국 여성들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미아리 텍사스의 여성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녀로서는 살기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었다고 리나씨는 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나씨는 이 사회의 여자로서의 진정한 정체감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것이 지금의 그녀를 있게 했다. 미아리 텍사스에서, 한때는 청량리 588에서,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그녀는 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여성으로서 자신이 잘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리나씨는 말한다.

나는 단지 한 여성을 만난 것일 뿐이었다. 기자로서 내가 본 것은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리나씨를 마주하면서 나는 또 한 번 무너지는 내 자신을 감당해내야 했다. 그것은 부끄럽고도 아픈 과정이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너져 내린 뒤편만큼 그렇게 나는 또다른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유



성폭력, 성폭력 가해자를 설명하는 틀에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 혹은 정신병리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점이 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가해자를 으레히 정신병자로 생각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유혹에 의하여 일을 저지르게 된 불쌍한 희생양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에 상당히 익숙해 있다. 이들 세 가지 관점을 다시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학적 관점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하나는 전적으로 진화론적인 입장으로서 현재 인간의 모든 행동, 성역할, 지위 등이 진화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습득된 결과라는 설명들이다. 남성이 공격적, 여성이 수동적인 것은 다름아닌 진화의 흔적이다. 문명을 이만큼 일구어 살아낸 것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에 의하면 성폭력은 남성이 종족을 퍼뜨리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지게 된 생존전략이다. 생물학적 관점의 또다른 입장은 뇌와 호르몬으로 성폭력을 설명하는 부류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과 연관있다는 주장은 같은 생물학자들에 의하여 반박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의 생명력은 참

으로 끈질기다. 이들 관점은 상황에 따라,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폭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도 하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월등하게 공격적이기 쉽고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난자와 비교하면 수적으로나 운동성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는다(사족 - 숫자가 많은 것,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이 우월한 가치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그러나 가령 남성이 하필 왜 자신보다 어리고 힘이 없는 대상에게 다른 표현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라는 방법으로 공격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문제삼아야 할 부분은 성폭력이 참을 수 없는 본능으로부터 결과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두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이다. 이는 행동을 개인의 심리, 인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가령 여러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폭력적인 행동이 유발되는데 그 문제들은 '미성숙한 인성, 충동억제력의 빈약함, 좌절감에 대한 낮은 통제력, 높은 의존성, 친밀감이나 유기에 대한 두려움, 시기, 정신병리학적 질병, 성장과정에서 얻은 외상으로 인한 자아통제 기능의 어려움 등'이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가학적이거나 정신병리학적이며 지극히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이며 때로는 뇌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다.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측면에 한정시키면서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맥락도 개입되지 않는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성의 사회구성론을 주장하는 관점과 같은 것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성폭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사회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왜 참을 수 없는 남성의 성욕을 건드렸다는 죄목으로 피해자인 여성에게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지, 왜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되는지, 왜 성폭력이라는 형태로 폭력성이 표출되어야 하는지, 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권력이나 물리력이 약한 대상을 공격하게 되는지, 왜 남성은 공격적이고 여성은 수동적인 것으로 고정화되는지, 왜 성폭력은 자꾸만 되풀이되는지, 왜 성폭력은 사회가 달라지면서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이다.

Groth(1979)는 강간의 형태를 권력의 강간, 분노의 강간, 가학의 강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모두 사회문화적인 것들이다. 권력의 강간은 정복의지의 표현으로, 분노의 강간은 적대감의 표현, 가학의 강간은 권력과 분노가 예로틱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Groth는 정복이나 적대감 등이 경제력이나 계층, 인종 등의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을 강간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어느 정도 대리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이외에도 폭력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여러 요인으로부터 형성된다. 가령 남성의 성역할 정체감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 대중매체를 통하여 남성다움은 부단하게 폭력성과 연결되어 전달된다. 이때 공격의 대상은 여성이기가 쉽다.

남성들의 군대문화는 이들의 폭력성을 더할 나위 없이 미화하고 정당화한다. 그 안에서 여성은 비하되고 대상화된다. 남성은 또래집단의 일원으로 사회화되면서 공

격성과 폭력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사실 윤간에 가담한 청소년 가해자는 성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간의 유대, 소속감 때문에 저지른 행위였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이들은 포르노그래피 등을 통하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학습하게 되고 여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진다.

이들에게는 성폭력이 폭력이 아니다. 추적받지 않은 강간범의 진술을 보면 이들에게 성폭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도대체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하여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대부분 이들의 범행은 계획된 것이며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나 자기 이미지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이들의 16%는 강간을 행함으로써 자기 이미지가 향상되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강간은 결국 이들에게 상해를 입을 수 있다거나 잡혀서 형을 살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이 적은 반면 자아가 강화된다는 보상이 훨씬 큰 행위인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엇을 조장해 오고 있는지(은밀하게나 공개적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성폭력을 설명하는 관건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적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이들에게 어떻게 사회화되고 내면화되는지를 알아내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회문화적 관점은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을 사회적 맥락과 통합하여 성폭력을 보다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 성폭력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

사회문화적 관점은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을 사회적 맥락과 통합하여 성폭력을 보다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이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되며 성폭력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움받은 책 :

"Ending the Silence : The Origins and Treatment of Male Violence against Women," Ron Thome-Finch, 1992
 "Stopping Rape : Successful Survival Strategies," P.B.Bart & P.H.O'Brien, 1985.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 : 보호관찰대상자(성폭력범)의 사례연구」, 박현이, 1996.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조정아 (이대 여성연구원)

나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여자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현 직장 또한 전부 여자로 이뤄진 곳

이니 가히 여성천국에서 살아온 셈이다. 이러한 내 경험 때문인지 간혹 여자들만 그렇게 많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게 된다. 특히 여자들은 질투심이 많아 서로 잘 싸운다든지, 여자들 사이의 우정은 오래 가지 못한다든지, 심지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들이 과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과연 여자들끼리 살아온 모습은 어땠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게 된다. 사회에서 여자들의 사이 나쁘게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싶다. 떠느리는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를 훨씬 더 어려워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간 여직원은 남자 상사보다 고참 여직원을 더 무서워한다. 오히려 남자들한테는 공적인 관계, 적당한 거리유지나 애교부리기가 가능한 데 비해 여자들 사이는 서로 경계하며 불편한 관계일 경우가 많다고들 한다.

그런데 가만보면 여자끼리 더 사이 나쁘게 되는 공간은 여자들만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남녀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회사에서 여사원이 같은 여자는 시기하거나 경계하면서 남자 사원에게는 친절하게 대한다든지, 여직원이 여자 상사를 더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학후배들이 입사초기에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문제를 보면 주로 같은 직원간의 융화문제일 경우가 많다. 이는 성차별을 여성의 사회생활에 가장 큰 장애로 본 내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입사초기에 대졸 여사원의 나이가 대략 22~23세이고, 고참 고졸 여직원의 나이는 20대 후반이 된다. 고참 여직원은 '언니'라고 부르며 선배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갓 입사한 대졸 여직원은 다른 남자 신입사원에게는 아무 말이 없으면서 유독 자기에게만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언니'의 호칭을 요구하며 선배대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싫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꺼리고 부담스런 상대로 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문제는 고졸 여사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월급이나 승진의 성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 성차별인데 그것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여자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면서 여자끼리

서로 갈등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들과는 서로 멀어지고 남자 사원들끼리는 가까워지는,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들간의 문제가 과연 그만큼 심각한 것일까 하는 의심도 해보게 된다. 사실 남자들 사이에도 경쟁은 존재한다. 여자들 못지 않은, 아니 오히려 여자들보다 사회적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떡을 놓고 싸우는 만큼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자들간의 갈등은 '시기'라든가 '질투심'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격화되고 남자들간의 다툼은 '경쟁'이라는 약간 더 공적이며 불가피한 어떤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다.

특히 근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회사에서 남자들은 선후배가 서로 잘 챙겨주며 정치력을 행사하는 데 비해 여자선배들은 남자들에 비해 같은 여자후배를 키워주지 못한다는 불평도 들린다. 이것 역시 남자들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파위가 있고 계보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자들은 그런 파워게임을 벌일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만 가히 '여자들만의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기억 속에는 서로 적대적인 여성들의 모습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자상한 배려 속에 서로를 아껴주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내가 만난 여자들이 특별히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중간에 남자가 끼여들지 않아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여자와 남자를 서로 적으로 만드는 성차별이 없는 곳이어서 서로 아껴줄 수 있었던 것일까? 물론 내가 이 세 가지가 다 적당히 혼합된 곳에 있는 행운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남자들보다 더 많이 익힌 여자들이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서 남의 필요와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해온 것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다. 어린아이 키우기, 아픈 사람 돌보기 등등,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려와 보살핌의 자질을 서로에게 보낼 때, 여자들이 서로 적이라는 사회의 수근거림은 근거없는 것으로, 아니 성차별적 구조에 기인한 것임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

이 몸이 없다면

송경아(소설가)

나는 가끔 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피곤할 때, 아플 때, 졸릴 때, 생리통이 심할 때, 몸 같은 것은 있어봤자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 때가 있다. 아마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놈의 몸,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하는 노인들의 한탄도 실은 ‘몸이 없어서 몸으로 고생하는 모든 것이 없었으면’ 하는 염원의 말이다. 기독교의 ‘천국’이라는 곳도, 몸이 있되 없는, 몸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곳으로 그려진다. 몸이 있되 없는 세계는 천국이고 유토피아이다.

테리 길리엄 감독의 ‘브라질’이라는 영화가 있다. 그곳에서 그리는 가상세계는, 모든 주민들이 컴퓨터에 기록되고 통제되는 독재세계이다.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가 레지스탕스로 기록되어 쫓기는 것을 알고, 컴퓨터를 조작해 사랑하는 여인의 기록을 지워버린다. 이제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애인에게 전하는 주인공의 말이 깊은 인상을 준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당신은 죽었어!” 여인은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며 웃으면서 말한다. “당신, 네크로필리아(시체강간을 하는 도착성욕자)가 될래요?” 실제로 살아 있는 몸보다, 개인에 대한 정보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 자기 몸,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은 차라리 정보의 통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빈틈이 된다.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같은 디스토피아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이 두 세계가 묘하게 결합된 곳이 있다.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곳은 바로 컴퓨터의 공간이다.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통신세계’가 바로 그 유토피아-디스토피아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름과 몇 개의 고유문자(ID), 자기가 생산해내는 말과 글의 양과 질로만 판단된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얼마나, 몸무게가 얼마나는 통신세계 안에서만은 판단할 수 없다. 사진 같은 화상정보를 신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화상정보는 이용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전제 아래서만 유효하다. 다른 사람 사진을 갖다 실어도, 만나기 전까지는 확인해

볼 수 없다. ‘몸’은 찾아볼 수 없고, 정보가 중요하다. 아무리 아파서 끙끙거리려도 손가락이 성한 한 통신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발랄한 성격을 연기할 수도 있다(연기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지만). 통신세계는 ‘몸’이 없는 곳이다.

참 이상한 일은, ‘몸’이 없는 곳에서도 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몸이 없는 곳에서 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자신을 드러낸다. ‘섹스’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간 글은 주변의 글보다 훨씬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통신상에서 대화하는 곳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여자냐 남자냐’, 그 다음에 ‘나이가 몇이냐’다. 물론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

성폭행사건이 일어나면 논쟁이나 개탄이 현실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도 통신망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 ‘몸 없음’이 그런 논쟁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싶다. 현실세계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혹은 여자)와 나이 어린 여자(혹은 남자)가 그런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통신에서는 이름과 ID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면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동작을 살필 필요가 없다. 현실 세계보다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몸이 없으나, 성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 이런 기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런 현상을 마주칠 때마다, 나는 보바르의 명언을 떠올린다.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성도 마찬가지다. 성은 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성이 얼마나 건전한가(청교도적인 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가의 척도가 될 것이다. **윤**

거부할 권리 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 김완섭의 『창녀론』을 읽고

윤수연 / 나눔터기자

요즘 pc 동시에 올랐던 김완섭씨의 글이 『창녀론』이란 책으로 출간되면서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1세기 여성해방을 위한 혁명적 여성이론」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을 읽고 여성의 순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여대생이 있는 반면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괴론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또 참신하고 혁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며 호의나 동조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과연 김완섭의 『창녀론』이란 어떤 글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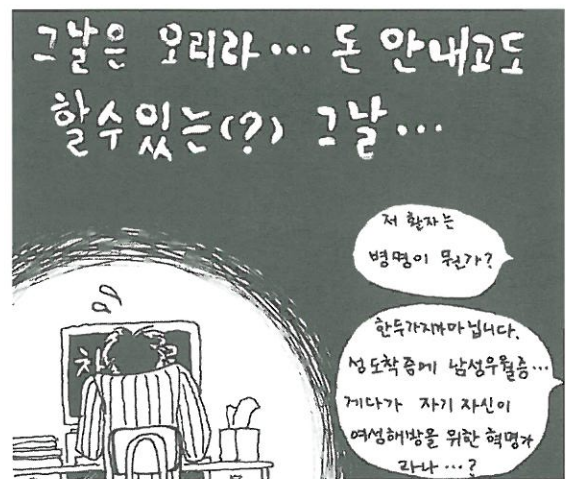
그는 현실의 봉건적 제도에 여성은 순결이데올로기로 자신의 성적 자유를 억압받고 가부장적 가정 속에서 남편의 재산 내지 전속창녀로 구속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해방되려면 매춘과 포르노사업 육성 등 성의 상품화를 통하여 성을 개방시켜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이 자각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이데올로기, 가정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 등 계속 거론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성의 상품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뼈대이다. 그럼 이제부터 그의 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김완섭은 여성의 '순결'에 대하여 극도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성이 순결을 지키려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성적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남성에게 가정 속에 전속창녀로 팔려가는 상품인 것을 인정하고 좀더 높은 값에 팔리기 위하여 상품의 질을 높이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회적 조교가 여성이 비싼값으로 팔리기 위하여 꼭 간직해야 할 순결을 신정휴 교수가 더럽히려 했으나 자신은 이것을 굳건히 지켰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고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여성은 결혼전에 조금의 성적 접촉도 있어선 안된다는 보수적 순결이데올로기를 지키려는 배후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에 그러한 배후음모가 있었던 것일까?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이 싫은 경우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두 가능해야 성적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은 여성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할 수 있다는, 단순한 성개방차원을 벗어난 적극적 성의 자율권 획득을 위한 투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결이데올로기를 꼭 없애져야 할 장벽으로 보고 이 장벽을 깨부술 전위부대로 신세대 창녀를 들고 있다.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매춘에 종사하는 창녀가 늘어남으로써 성의 개방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성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자각을 가지고 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주체적인 해방된 여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된 여성은 순결이데올로기 등 보수적, 봉건적 제도를 타파하여 마침내 여성해방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창녀의 자발적 의지'란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해방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에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창녀만큼 자신의 욕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경우는 없다. 창녀는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돈을 위해 성행위를 해야 한다. 즉 이 자발적이란 말은 성관계에서 주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매춘에 뛰어들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자의로 매춘에 들어왔다고 하는 경우도 매춘여성이 대부분 성폭행의 경험이 있고 문제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구조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김완섭은 앞에서와 같이 성의 상품화를 통하여 성개방이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 성의 상품화를 통해서 성의 개방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성은 여전히 남성에 의하여 벗겨지고 노출되고 관찰당하는 관음주의의 대상물이며 남성은 한계단 위에서 여성을 벗기고 바라보는 권력자이다. 즉 성의 상품화에서 김완섭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주체적 성의지를 가진 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한 성의 개방으로 여성이 자각한다 해도 남성은 여전히 여성을 성적 대상물, 노리개로 바라볼 뿐이다 성해방은 여성만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김완섭은 문제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다.

성해방은 한쪽 성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여성의 인내와 자각으로 완전한 성해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틀 전체가 변화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여성, 그리고 남성 모두가 개별적으로, 또 전체로서 성해방의 주체임을 깨닫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여성에게 성의 자유만 주어지고 성의 거부권은 무시될 때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의 성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풀고 주어야 하는 또다른 굴레에 속박당하게 될 것이다. ♣



여성계 소식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남 대전 여성지방의원 의정포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96년 7월 19일 대전광역시 여성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충청도지역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충남 대전 여성지방의원 의정포럼을 열었다. 충청지역의 여성의원, 대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의회의장, 여성정책 담당자, 정당 여성국장등이 참석하여 충청남도의 여성정책에 토론 및 질의 응답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충청도지방의 여성정책을 폭넓게 논평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1세기 정보화시대와 여성인력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10여 개국이 참여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와 여성인력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정보화의 진전이 여성들의 사회적 삶- 정치, 경제, 사회 및 시민(여성)운동에 미칠 변화와 영향들을 예견해 보고,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함이다.

기간 11월 18일~20일

장소 인터콘티넨탈 호텔

소모임 소식 - 성문화읽기

성문화 읽기는 나이가 많은 모임이다. 상담소 설립 후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소모임 중 하나로 많은 상근자들, 나눔이들, 상담원 선생님들이 거쳐 가셨고, 이제는 후배들이 선배의 뒤를 이어 사회내에 뿌리박힌 억압과 왜곡의 구조들을 분별해내고 있다. 근본적으로 성폭력이 잘못된 사회적 구조와 교육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면, 그 구조와 교육을 파생시키는 원인으로 현시대의 인식과 그 표현의 집합체인 문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성문화 읽기는 그 모임의 명칭처럼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과 언어, 예술적 행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호들을 파악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억압과 왜곡의 씨앗들을 잡아내어 폭로하는 일이 '읽기'의 의미이다.

이를 위해 모임에서는 영화와 연극, 신문과 잡지, 미술, 대중음악 등에 대한 읽기를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그 초기 단계로서 영화와 스포츠신문에 대한 읽기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는 미래 문화의 주류로서,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매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영화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의 세계관을 변함없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억압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고, 자본과 대중의 기호를 충실히 반영하며 현시대의 모든 문화적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전반을 읽어내는 단초가 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문자기호에 비해 영상기호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다는 점도 영화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된다.

스포츠신문은 이 시대 문화의 시공창과 같다. 그곳에는 이 시대 대중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욕구들이 가려진 바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모임에서는 임의적으로 하루를 선택하여 신문을 분석해 본 결과, 광고에 담긴 내용과는 별도로 신문 한 부당 5건 이상의 왜곡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이 6개월 중 1, 2회에 불과함에 비해, 청소년들은 거의 날마다 이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왜곡된 정보들을 신문이라는 강력한 권위를 통해 직면하고 있는 셈이고, 이들을 가르칠 성인들의 사정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함이 더해진다. 따라서 스포츠신문 읽기는 성과 여성에 대한 왜곡의 본체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화두와 같다.

그러나 성문화 읽기가 이들 두 매체에 한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임의 역량과 결실이 나타나는 대로 '읽기'의 관심은 TV드라마, 잡지, 기타 문화 전반을 향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언을 해주실 분, 함께 모임에 참여해 주실 분, 기타 여러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임의 시간과 장소는 상담소내의 게시판에 알려져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경애 선생님께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만족스러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문화의 가벼움

김병준 / 성문화 읽기 회원

성문화 읽기에는 정경애 선생님, 나눔이로 두 혜진이, 지킴이로 수영, 정숙, 지원, 진선, 상희, 혜숙이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함께 문제를 극복합시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법률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혼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담소로 전화하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529-4271 ~2 / 긴급전화 578-1888

상담소가 하는 일

전화상담 및 신고접수(24시간)
법률 의료 경찰지원
피해극복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위기에 처한 내담자를 위한 시설 '열린터' 운영

성폭력상담소는 많은 분들의
정성과 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상담원 : 일정한 교육(여성학/상담이론 및 실제)을 이수한 후 활동
나눔이 :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등 일상업무 보조
지킴이 : 긴급피해자와 경찰, 병원, 상담원 등 지원체계를 연계

**피해여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합시다.
후원회원에게는 나눔터를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려면 온라인으로 입금하시고 전화해 주십시오.
국민은행 009-01-1176-632 / 농협 037-01-194301
(수신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회원이 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 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
로 납입하신 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판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조사연구부 실장·김지혜
P.C 통신 실장·정진욱
책임상담원·김미숙 유정순 이희숙
야간간사·정유석

새로운 후원회원

김부자 박은정 이준경 한경숙 심혜근
이정호

새로운 회원

이원숙 박미옥 한남숙 이운로
박미옥

기부금 내주신 분

주은영 박정혜 송현금 이수경 김세중
임경숙

우리 상담소의 심볼 유는
"여성들의 자매"를 상징합니다.

본 상담소 심볼인 유는 여성을 나타내는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에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볼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상담활동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데 큰 뜻을 둔 단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모든 상담활동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활동 소식지 교육자료 연구물 간행 등의 홍보 출판활동 사례분석 실태조사 자료의 연구 수집 등의 조사연구활동 나라 안팎의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상담원 활동과 더불어 지킴이 활동 후원회원 나눔터회원 기증 등의 방법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작은 실천과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예방활동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사

강기원 민병진 박금자 오세민 윤장순 이종걸 장동철 최영애 추배주

감사

배지하/새우사 차재능/회계사

자문위원

상담
기독교학/서광선 심리학/박예선·이창호·조혜자·이혜성 아동학/장연집 여성학/한정지

법률

김사/김유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김삼학·박찬운·신기남·이명숙·이상경·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재호·장철우·정갑생·조병향·황상선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용·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이원태·최영식·황적준 심부인과/김주필·김현식·남소자·문영규·민응기·박경자·박금자·박소현·박달실·박종민·안명옥·윤경·이경희·이길녀·이옥주·임용택·한중수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곽영숙·최보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후·김정일·남정현·소은희·양창순·윤애리·이나미·정동철·최진숙 의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해란·이재숙

연구

교육학/김인수 사회학/김준호·심영희·조형 여성학/이재경·장필화·조주현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정대현 통계학/이용재

홍보출판

동시문학/김지명 시화/박진숙 시사만평가 최정현 신문방송학/김용숙 최선열 언론인/김철기·전여옥·조성숙 여성학/박혜란·오숙희 연극인/김지숙·손숙 출판/강학중·이인지

재정

고석주 김미주 김우혜 문선경 민병진 박병희 윤장순 최조자 추배주

대표이사
소장
부소장
·박금자
·최영애
·장영복